

충남마을기행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는 이응노 마을

충남연구원 이유나 연구원 / 정봉희 홍보팀장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故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돌베개, 1996)

‘이응노 마을’의 독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다.

마을을 위해 냄새만 풍기는 것이 아닌 삶을 싹혀 밑거름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응노 마을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응노 생가기념관의 윤후영 주무관과 마을신문의 편집장이기도 한 전상진 사무장.

무심한 듯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이응노 마을’에 대해 묻자 두 사람은 금세 열정 가득한 기획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2011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가 있던 자리에 건물이

왼쪽부터 전상진 사무장,
윤후영 주무관



복원되고 그 옆에 미술관이 생겼다.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세우기 위해 원주민들을 이주 시켰고 준비한 폐가들 사이어 덩그러니 세워진 미술관.

그 미술관 학예사로 일하게 된 윤후영 주무관에게 마을의 첫 인상은 매우 의미심장했다고 한다. 윤 주무관은 미술관이 마을과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암부부의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마을 노부부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생활용품을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했다.

그 전시회는 ‘홍천마을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마을 행사가 되었고, 마을주민이 미술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주민을 단순히 객석에 앉은 손님이 아닌 주체로 세우고,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주민들과 신뢰를 쌓은 것이다.



고암 이응노 부부의 사진

이것을 시작으로 그는 민(民)·관(官)·예(藝)가 함께하는 마을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강요와 금전적 지원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예술마음이 되면 참 좋은데...” 라며, 사람들 스스로 문화예술마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그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그저 머릿속에만 있던 그림에 이론을 입혀 논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마을신문. 연극 전공의 지역 신문 기자였던 전상진 사무장은 본래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다고 한다. 윤 주무관이 처음 미술관에 왔을 때 했던 인터뷰를 인연으로 그는 마을 지도를 함께 그리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 소식지이자 언어가 될 마을신문을 위해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응노 마을의 편집장(?)이 되었고, 현재의 권역 사무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위 부터 이응노 생가기념관 앞 연밭,
창작스튜디오 손민광 작가의 다양한 관점

그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예술에 차츰 젖어들게 만들며 관이 지원하지만 민이 주도하는 구도를 다져나갔다.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힐링 반상회’, ‘문화예술잔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의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예, 목공예, 가죽공예 등 생활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마을 해설사 양성, 도서관 활용 등 주민을 주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과 예술마을이라는 성격에 맞게 입주작가 활동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을 축적해 공공예술을 지향하는 ‘창작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소득을 위해 연잎 가공 사업과 더불어 주민 공동소득 창출 기반인 마을합동조합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렇게 씨를 심어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7년, 농식품부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3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3년은 뿌렸던 씨를 묘목으로 키우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체험객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프로그램은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들은 완벽히 마을에 녹아들어 함께 살아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만 들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의 입간판



1) 이응노 생가터
2) 이응노 생가기념 미술관

고 들어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마을을 적시는 시늉만 하고 빠져나가는 관행적인 마을 사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의지가 느껴졌다.

홍동마을을 닮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제2의 홍동마을은 아니라고 했다. 관의 금전적 지원이 다가 아닌, 민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 예술이 그저 걸치레가 아닌,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제1의 문화예술마을이 되고 싶다고 했다.

관의 지원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면서 마을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원주민들에게만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화와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이 세대를 어우르는 언어가 되어 마을을 소통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마을의 주인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그 당연한 민주주의를 위해, 그 당연한 민주주의가 마을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논리가 되기를 꿈꾸며,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우직하게 마을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갈 단 한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응노 마을’이 어디냐 물으면 “여기는 중계리여~ 기념관 근처로 가봐.” “미술관 근처일걸요?”라는 대답이 아닌, 바로 여기가 이응노 마을이고, 내가 이 마을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진짜 마을 주민이 사는 진짜 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서 단단한 뿌리가 되어야 할 마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응노 마을’에 가면 들을 수 있다.

이응노 생가기념관 전경

